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제37권 43호(가해) 2017년 9월 17일

[목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순교의 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와 용기에서 드러나고,
어떤 어려움도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

순교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참 생명으로 나아갔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피로써 증거한 분들이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자기희생과 부활의 전표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과 이웃 안에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움과 불목이 아니고 사랑과 기쁨이 피어난다.

하느님께 대한 강한 사랑과 믿음을 본받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순교자의 후예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5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견) ●꾸리아 ●빈첸시오회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토요 저녁 미사	(원)이윤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권재식 네오 & 박유순 빅토리아,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호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오창근 베드로 사제
주일 낮 미사	(원)길광주,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엄정자 분다, 김차옥 요셉 & 김복님마리아, 정상문 스테파노, 김진엽 마리아, 조순길 요셉, 연옥영혼, 박주현 마리아, 이석종 & 유수철 도미니코신부
	(생)권순길 세실리아, 손석 스테파노, 최동한 안드레아, 토런스북 구역원가정, 반명자데레사 & 김베드로, 손해은 라파엘라 & 손에디 & 손은영 아네스, 김형순다니엘 & 김호인 벨라데타, 박희자 마리아, 김지훈 대전 안드레아, 김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V.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44. 최근에 건설된 지역들마저도 혼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멘트, 아스팔트, 유리, 금속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자연과 물리적 접촉이 차단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45. 일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특정 공간을 사유화하여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운 장소에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인위적 평안을 누리하고자 외부를 차단한 이른바 ‘생태’주거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도시의 이른바 ‘안전’ 지역에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녹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 생활에서 소외된 이들이 살고 있는, 제대로 눈에 띄이지 않는 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46. 세계적 변화의 사회적 요인들 가운데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 사회적 소외, 에너지와 그 밖의 공공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배와 소비, 사회적 붕괴, 폭력증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폭력의 증가, 마약매매, 젊은이 들의 마약사용증가, 정체성 상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들은 지난 두 세기의 성장이 언제나 온전한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징표 가운데 일부는 현실적인 사회적 쇠퇴,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유대가 소외 없이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47. 더 나아가 매체와 디지털 세계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넉넉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영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훌륭한 현인들의 말씀이 넘쳐나는 정보의 소음과 혼란 속에 들리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우리의 가장 커다란 풍요를 위협하지 않는, 인류의 새로운 문화적 진보의 원천으로 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성가

< 계속 >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8	108	108
봉헌	267	267	343
성체	291	291	345
파견	339	339	339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답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로마(Romans) 8,31-3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루카 (Luke) 9,23-26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고통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문득 ‘날마다’라는 단어에 시선이 머무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우리이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져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가벼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모든 고통과 수고로움에서 해방시켜주마’라고 말씀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고통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부자든 아니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낮은, 어른이든 아이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나름의 고통을 견디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고통의 현실에서 제외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일상적인 우리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의 의미 없음 때문이 아닐까요. 왜 유독 우리 집은 이렇게 불화에 시달려야 하는지, 왜 나에게만 취직의 길은 이리도 험난한지, 왜 내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등, 왜 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갖가지 고통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숨통을 끊어버릴 듯 달려들어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의 무의미함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유라도 알았더라면, 극심한 출산의 고통 후에도 그 고통이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낳기 위함이었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산모처럼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할 텐데. 기도하고 애원해도 지겹게도 반복되는 고통의 현실에 우리 영혼은 차츰 지쳐갑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우리 일상의 고통이 사실은 그 안에 심원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임을 알려주십니다. 곧 고통은, 달리 피할 길이 없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부조리한 인간의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죽음마저 감내하셨던 예수님 삶의 정수. 당신의 그 십자가

삶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통해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인간 실존의 무의미한 한 단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상의 고통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사에서 기억하는 한국의 순교자들은, 삶의 고통을 십자가 살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신앙의 증거자 들입니다. 그분들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 제게서 이 십자가들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이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게 우리의 일

폭염에 농작물이 말라붙고 큰물에 모두 휩쓸려갔다지만
시장엔 고구마가 나오고 배도 보입니다.

계절의 몫입니다.

잠만 자도 아이들은 살이 오르고

노인들은 눈만 깜박여도 주름이 늙니다.

시간의 일입니다.

시장에 난 과실들을 먹고 그 씨를 심으며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인정하고

내일을 또 준비하는 일,

사람이 맡은 몫입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	박혜경 레나타	박진수 스테파노	정인욱 아오스딩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제물봉헌자			PV 1,4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시

 ☆ 9월 순교자 성월 ☆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
 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부산 교구 사제 정기인사 이동

백삼위 한인 성당에 머무르시던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이
 9월24일자로 부산으로 가시고 부산 수영성당에 계시던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께서 9월29일자로 부임하십니다.
 섭섭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신부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 축일(9월20일)

백삼위 본당의 날(9월 17일) 행사 안내

- 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요셉회 모임 변경안내

본당의 날 행사관계로 모임을 임시 변경합니다.

- 일시: 9월 24일 (넷째 주일) 12:45pm
- 장소: 친교장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전진반 수업 안내

- 대상: 9학년이상 미 전진자
- 전진2반,수요일 저녁 7시 ,담당교사: 써니황
 전진1반 : 마가렛 메리 성당에서 등록및 수업 진행합니다.
 격주로 주일 오후 3시~5시, 9월17일 첫 수업
 신청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e Lomita, 90717

☎ (310)326-9494

◆ 2018년 무술년(나해)달력 광고 후원 받습니다

- 신청마감 : 10월 1일(주일)
- 새해달력의 특징 :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 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
 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 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있습니다.
- 내용 : 성경 캘리그래피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 성전에서 새신자 소개 시에 쓰던 마이크를 찾고
 있습니다. 성당 오디오와 출력을 맞춰 놓은것이라
 다른 곳에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가져 가신 분이 계시면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17일 : 본당의 날 행사(구역별 점심)
- 9월24일 : * 토서2반 : (소고기 우거지국 \$ 0)
 * 주일학교: (소고기 우거지국 \$ 0)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고천용 금동균 김관기 김광자 김병주 김봉녀 김성택 김원호 김 준 김찬구 김철민 노혜숙 류현옥 박광자 박인건 박정자 반정이 서영주 안태갑 우영희 윤규화 윤선희 이민상 이정분 이은경 이종필 임의웅 장영우 정광미 정규숙 정판영 주대중 주상현 주용순 최동한 최수복 최지영 한장환 한창주 한력수 호경진 홍광선 황인중 황지영	성전헌금	강미순 고천용 금동균 김관기 김광자 김 준 김찬구 김철민 노혜숙 박광자 박인건 박정자 안태갑 윤선희 이민상 이정분 장영우 정규숙 정판영 주대중 주상현 주용순 최지영 한장환 한창주 한력수 홍광선 황인중 황지영
	합계:\$4,100		합계 : \$1,900
주일미사헌금 : \$2,390		감사헌금 : \$200(김강훈) 성물판매이익금 : \$ 688.60	

남가주 소식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창립 40주년 기획 골프대회
창립 40주년기념 성당확장프로젝트로 자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샷건방식)를 개최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9월 24일 (주일) 오후1시
- 장소 : Royal Vista Golf Club
- 문의 : 김영수 사무엘 (562)991-4200

◆남가주 한인 M.E.제 79차 첫 주말

- 일시 : 9월 23일(토)오후7시~24일 (주일)오후5시
-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1519 Woodworth St.San Fernando, CA 91340
- 참가비 : 부부당 \$350(숙식포함)
- 연락처 : 오승준 미카엘 & 수완 아네스 ☎ (562)714-590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제18회 말씀의 초막절(The Feast of Divine Word)

말씀의 초막절은 지난 1년 동안 이민생활의 광야에서
돌보아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웃과 사
랑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 일시 : - 개막미사 10월 8일(일) 4:00PM
폐막미사 10월 15일(일) 4:00PM
- 주간예절 10월 9일(월) - 9월13일(금),
(점심, 저녁 식사 제공)
10:00-12:00 AM & 7:30-9:30 PM
- 대상 : 관심있는 모든 신자
- 문의 : 714)521-1345
- 장소 :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베풀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 공 동 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 역 / 장	반	반 장	비 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장수영 페트리치오 781-07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김 아네스 (419)309-725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박명순 안나 968-760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영 클라라 938-8089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1,2반과 같음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4	변복순 메로니카 592-6945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12시45분
-----	--------

제 36차 본당의 날

* 주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행사시간:

10:00 AM - 11:30 AM : 본당의 날 기념미사

11:30 AM - 12:30 PM: 점심식사 (반별로 200불씩
지원, 각 구역에서 준비)

12:30 PM - 1:30 PM: 한마음 걷기대회

+ 한마음 걷기 골인하는 사람부터 타월 및 라플
지급하여 놀이 신청함

1:30 PM - 2:30 PM: 추억의 놀이 한마당

* 윷놀이: 2번 던져서 7점 이상 득점

* 제기차기: 2번 기회 15회면 득점

* 투호놀이: 5개 던져서 3개 이상 득점

* 주사위 : 던지기 7점 이상 득점

**상품은 진행본부에서 본인이 직접 고르기

2:30 PM --모든 신심단체 기금마련 부스 종료

3:00 PM - 4:00 PM: 구역별 연도대회

4:00PM - 4:30 PM: 경품추첨 및 시상식

4:45 PM - 폐회

* 걷기대회: ● 목주기도를 하면서 봉사자가 안내하는 구간을
걸습니다.

● 걷는 것은 자기 페이스에 맞추어서 걸습니다.

● 중간 구간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걷는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착점인 성당에 오시면서 봉사자들의 안내로
기념수건과 라플 티켓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연도대회

구역별로 한 팀씩 연도대회를 진행합니다.

* 시간: 3시 ~ 4시

신심단체 기금마련 행사

● 시간: 12시30분 ~ 2시30분

● 내용:

상품

* 라플 : H마켓 \$20(25장), 스타 박스 \$20(10장)

* 도시락김, 라면박스, 참기름, 프라이팬, 다리미판,

인덕션냄비, 휴대용 스토브 등등...

* 상금 : 최우수: \$300, 우수: \$200, 장려상, 참가상: \$100

점심식사

* 시간: 11시30분 ~ 12시30분

* 장소: 성당 친교장

* 구역분할: 친교장의 무대를 중심으로 6개 구역 분할됩니다.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 칼슨, PV

* 점심식사: 신자 분 들은 각 소속구역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음 목주기도 걷기대회

* 시간: 12시30분 ~ 1시 30분

* 구간: 봉사자가 안내예정 (약 2마일 정도)

* 준비물: 목주, 운동화, 간단한 옷차림, 선블락 크림, 모자,
선글라스, 물병

제대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각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고 다소곳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디다 절을 하셨어요? 돌발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막 성전에 들어선 여러분은 다음 중 무엇을 향해 절을 하셨던 걸까요?

① 성전 중앙의 십자가 ② 제단 위의 제대 ③ 성체동이 켜진 감실 ④ 내 마음이 가는 데

④번이 가장 끌린다고요? 정답은? ②제단 위의 제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방금 여러분은 제대를 향해 절을 하신 것이지요.

제대는 교회의 원천이자 머리로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표지입니다. 때문에 제대는 전례 거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대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바치신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식탁입니다. 제대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전례 거행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에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사제는 미사 입당 때나 퇴장 때 제대에 대한 존경으로 제대 앞에 나아가 정중히 절을 합니다. 때로는 제대에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사제는 복음 봉독 전에도 제대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우도 제대 앞을 지나갈 때면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시합니다.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 봉헌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장소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감사제의 중심입니다. 제대 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자 원천인 성찬례가 거행되기에 교회는 제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이로써 제대는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상징물이자 파스카 신비를 연상시키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제대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제직을 이어받은 사제들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곳이자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감사와 공경의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간의 ()를 위해 바치신 () 제사를 재현하는 식탁입니다. ()는 하느님과 백성의 ()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 거행의 중심점이 됩니다.

9월10일 자 정답: 인간, 본성, 교회, 연대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35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석류

석류는 성스러운 식물로 등장한다. 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에봇에 딸린 겹옷 자락 둘레에 석류들을 만들어 달도록 했다.(탈출 28,31-35 참조)

석류는 아름다운 여인의 볼에 비유되기도 하고,(아가 4,3 참조) 석류의 씨는 풍요를 상징하며,(아가 4,13 참조) 달콤한 즙은 사랑의 꿀(아가 8,2 참조)로 표현된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왕궁 장식에 석류나무를 사용했다.(2열왕 25,17; 2역대 4,13 참조) 석류 열매의 풍작은 하느님의 복을 상징하기도 한다.(하카 2,19 참조)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포)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자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